

불교 이래서 좋다

정혜경 성북노인복지관 간호사

“함께하는 삶의 기쁨 느껴”

불교와 내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왔던 진각종 심인당은 내 유년시절의 놀이터였다. 마음껏 뛰놀며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던 그곳. 그곳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언제나 포근하고 넉넉한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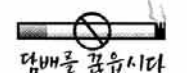
이런 나에게 한 가득 광명이 비쳐왔다. 그것은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인 현각스님이 쓴 <만행>. 천주교와 불교, 예수와 부처, 서양과 동양을 넘어서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묻는 스님의 질문은 내 방향을 잡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고민의 순간도 있었다.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등 헤아릴 수 없이 나누어진 불교 종단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애쓰는 사람들이 왜 나누어져 화합하지 못할까. 이것은 늘 나를 따라다니던 의문이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에는 남모름 고민을 하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다. 자타불이, 너와 내가 없다면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조계종, 진각종의 나눔이 중요하지 않구나. 불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구나. 결국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참 불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때의 방향은 방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교는 이웃종교들을 비방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불자들은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불교는 이웃과 사이 좋게 살아가는 종교인 것이다. 이런 불교의 너그러움 포용성은 내 삶의 중요한 방향타다.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내가 괴로울 때 남의 괴로움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때문이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여성 흡연

1. 태아의 발육 부진 야기

태아의 발육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는 태아의 체중,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태아의 체중이 평균 500g 정도 감소한다. 이러한 태아의 저체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담배 연기

면, 임신 중의 흡연이 태아에게 산소 공급 결핍을 가져와 태아의 행동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임신 기간 동안 흡연한 여성의 자녀는 비흡연 여성의 자녀보다 독서 능력은 3~4%, 주의력은 2% 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3. 미숙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

태아 발육·정신 발달 등에 지장 줘

속에 있는 니코틴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이고 둘째,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CO)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빈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 유아행동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

에 충분한 영양분이 태아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태아가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강력히 결합되어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혈관 내막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인기’

부산→양정, 서울→목동, 청주→디지털 상담실 대표적

“저는 고3수험생인데... 날이 갈수록 아픈 생각이 많이 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자위인지 몽정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미치겠습니다.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상담실 게시판에서)



◇지난 8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포레상담’ 프로그램 참가한 청소년들이 ‘난이런 사람이에요’란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성문제부터 대인관계, 학업진로, 학교 부적응 문제까지, 청소년들의 고민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상담실이 올 상반기 상담건수 334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업 및 진로고민 112건(33.5%), 성·이성 문제 103건(30.8%), 학교부적응 85건(25.4%), 기타 34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는 불교계 청소년시설의 상담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 시설 3곳을 소개한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10월 5일부터 12월까지 학업중단 형

청소년 심리극, 사이버 상담 등 진행 학업·진로고민 상담건수 가장 많아

다. 이밖에도 수련관 상담실은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을 비롯해 MBTI성격유형, 학습 습관, 진로, 적성 등의 심리검사, 청소년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51)868-0950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학습방법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방법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이

위한 ‘자기표현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02)2646-8341

●청주 관음사 부설 디지털청소년 열린 상담실: 99년 10월에 문을 연 사이버 청소년상담실로 청소년이 가장 넉넉한 상담의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 음악 감상법, 방과후 공부방 등을 연중 계속 운영, 청소년 종합 상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043)257-0807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대불청 서울지구, 청년대회 개최

170명 참가...거리캠페인 등 대중포교의 장 마련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지구장 조영규)는 8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16차 대불청 서울지구 불교청년대회를 열었다.

‘청년불자 서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구룡사, 용화사 등 서울지구 산하 9개 지회 청년회 회원 170여명이 참석, 청년불자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길상사 청년회 회원의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열린 서울지구 불청

대회에서는 보시행과 자리아타 행의 마음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및 장묘문화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연꽃 컵등 만들기, 부처님 수인 그리기, 불(佛)자 써보기, 풍물패의 문화공연 등 거리포교행사가 인사동 남인사동 마당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길상사에서 종로, 인사동까지 벌인 ‘북한산살리기 거리캠페인’ 활동에서 서울지구 청년회 회원들은 거리 시민들에게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터널의 불합리한 점을 홍보하는 등 청년불자 뿐



◇8일 청년불자들이 종로 및 인사동 일대에서 ‘북한산 살리기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포교운동의 장을 마련했다.

대불청 서울지구 조영규 회장은 “민음과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 단신 비로자나협, '수요 영화감상회' 25일까지 아리랑아트홀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해명)는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부터 마포구 소극장 아리랑아트홀에서 중고생 1백50명을 대상으로 ‘수요 무료 영화 감상회’를 연다. 11일은 블레이드, 오션스리베, 18일은 몬스터주식회사, 레지던트 이블, 25일은 해적 디스코왕 되다. 긴급조치 19호 등이 상영된다. 건전한 취미활동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참여 청소년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후속 상영 작품을 결정한다. (02)942-0636

실천하는 신행동체(信行同體)의 청년불자상 모색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사회문제에까지 앞장서는 청년불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소임 선택 글 올리고 공부 점검도...

불교도 알고 영어도 배우고 싶으면 다음번의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라는 카페를 가보자.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cafe.daum.net/buddha)’이라 달마 카페’는 정혜스님(육천사을 지도

법사로 성철스님의 능엄회상과 불교영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20대 초반에서 50대에 이르는 회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 없이 함께 공부해가는 도반으로 다양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용상방코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전연구회, 달마연불회, 불교영어회화, 토요일 등 24가지 소임중간 가지를 선택하여 관련된 글을 올리도록 한다. 자기가 맡은 소임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해나갈 수 있어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다. 소임선택을 어려워하는 회원은 토요일정진을 선택하게 하여 능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초기 화면.

영어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밖에 소모임으로 능엄장학회가 있는데, 능엄장학회는 육천사 어린이들에 대한 장학금 마련과 모임의 회비, 매년 2월의 능엄주 천축회 정기모임에 쓰는 경비마련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심자들에게는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대승의 보살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승보살로서 수행과 전법을 병행하고 싶다면 달마카페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렵가.

이한길 기자 sungak@buddhapa.com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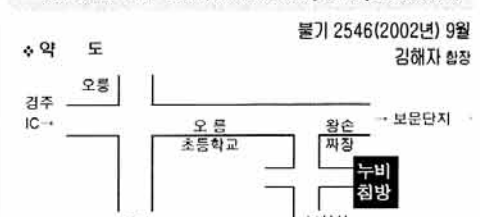
- 총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손누비 공개 강좌 안내

귀의 상보하하고 중요우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 선생님의 공방에서는 이번 10월에 승복조끼를 시작으로 승복 손누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손누비 옷하나 가지고 싶은 분들, 정성을 다하여 존경하는 스님에게 보시하시고 싶은 보살님들, 단순한 누비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고 싶은 분들, 화두쌍수의 의미를 두고 누비심체에 드시고 싶은 분들은 손누비 강좌에 오셔서 뜻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2년 10월 2일 ~ 10월 5일 (4회 연속)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대상: 10월 2일 - 일반인도, 10월 3일 - 일반인도, 10월 4일 - 비구니스님, 10월 5일 - 비구스님
- 장소: 경북 경주시 탐동 637-1번지 중요우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 누비공방
- 참가인원: 하루 30명
- 프로그램: 곁감·숙물염색한 명주, 안감·목조액 염색한 명주
- 재료비: 소 - 210,000, 중 - 235,000, 대 - 260,000
- 학비: 10,000원
- 모집기간: 2002년 9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 계좌번호: 농협 749-02-456047 김 해 자 자세한 내용은 경주 가공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4-775-2631, e-mail: nubyl07@yahoo.co.kr)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테공 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 백관달마 관문 제수부 ▷ 12피 수복 달마

▷ 달마 백관도 ▷ 금반 필자 달마대승지 ▷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PW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독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농협 100116-52-074406 양 대선 전 화: 02)839-7829

반대금액의 일부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정명 여관이 동기에 기증됩니다.

퇴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런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 간질병인지 처럼 발작을 일으킨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아이의 눈동자가 가끔 사시가 된다.
-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왔다갔다 흔들린다.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다.
- 가끔그다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 아이의 몸이 사시가 뒤뉘린다.
- 아이가 울때 울음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아닌것 같다.
- 아이의 목소리가 가성이 나온다.
-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거나 좌우로 흔들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할 수 없으니 큰병원에 가보라 등의 말을 해 주며 약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부분 어른이 상용해도 몸에 해로운 신경 안정제 임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때 완벽한 영체를 형성하여 다른 영들의 침입을 받지 않으나 편하게 살려는 부모와 의사들의 이해대신에 빛이 떨어져 배를 가르고 걸게로 아이를 뱃속에서 고집어 내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아 영체가 깨어져 나쁜 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영에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서 이상성격자가 되거나 신기를 보이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있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중생구제와 포교의 일환으로 도심에 정옥사 포교원을 개원하신 정옥스님이 여러분에 아이들을 마군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초월경성하신 정옥스님이 퇴마술써 불과 30분만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든 영가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들려 정신이상증세나 이상성격이 나타나는 자나 중풍, 알, 전신마비, 신체일부마비, 디스크, 골프병 등 각종질환을 가진 분들을 기적의 포기 화성술써 구제하여 드릴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은평구 용암동 117-16 정 옥 사 02)382-2217, 017)217-2219 주지: 정옥스님